

40. 송전 선로 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성별 남 **나이** 37세 **직종** 기타 건설공사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이OO은 2005.9.20부터 OO전기(주)에서 시공하는 시흥시 정왕동 부근의 신시흥 T/L 안전이격 확보공사를 하던 중 2005.12.20 겨드랑이 임파선의 종양 조직검사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이OO은 전기기능공으로서 송전탑의 송전선(345KV)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작업내용은 기존의 2개 철탁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케이블을 철거하여 새로 제작된 철탁으로 고압케이블을 옮겨 설치하는 작업으로 송전선 철거 및 설치 작업시 송전탑에 매달린 채 고압전선을 다루기 때문에 전기의 흐름이 몸으로 느껴진다고 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공사일정이 촉박하여 저녁 9시나 10시까지 작업을 수행한 적이 많았으며 점심 식사시간(약 1시간)을 제외하고는 종일 송전탑 위에서 작업을 하였다. 공휴일 관계없이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 주평균 5-6일 가량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OO이 수행한 송전선 설치 작업의 공사발주는 수시로 이루어지며 특히, 7~8월 혹서기에는 전력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공사가 없는 편이어서 작업환경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이OO은 15갑년 정도의 흡연력과 주당 2~3회, 회당 소주 1병 가량의 음주력이 있다. 1997년 B형 간염을 진단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2005년 8월 12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및 하지의 급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은 것 이외 특이질환은 없었다. 2005년 2월 25일 건강진단 결과 간기능 이상(음주, 비만, B형 간염 보균 상태와 연관된 소견), 내시경소견인 역류성식도염 및 만성 위염 판정을 받았다 2005년 9월경 왼쪽 겨드랑이 밑에 혹이 만져 2005.10.28 OO의료원에서 약물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호전되지 않아 2005.12.13 OO의료원에 정밀검사를 받은 후 2005.12.20 겨드랑이 임파선의 종양 조직검사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006.1.5 OO병원으로 전원하여 현재까지 항암치료 중이다.

4. 결론: 근로자 이OO는

- ① 이OO은 15년간의 극저주파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되었으며,
- ② 비호지킨 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없었으나,
- ③ 극저주파 자기장과 비호지킨 림프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와 증거가 불충분함을 고려할 때,

근로자 이OO의 비 호지킨 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